

보 도 해 명 자 료

(’11. 5. 24)

수신 : 지식경제부 등록기자

제목 : 동아일보 “포스코 파이넥스 공법, 中에
수출길 열렸다”보도에 대한 해명

1. 기사 요지 (’11.5.24, 동아일보 B1면)

- 지식경제부는 포스코 파이넥스 일관제철소의 중국 내 건설을 조건부로 승인하기로 했고,
- 이달 31일 베이징에서 열리는 제7차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에서 중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조건을 수용하면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함

2. 동 보도내용에 대한 지식경제부 입장

- 포스코 파이넥스 공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국가핵심기술로
- 동 기술에 대한 수출 승인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11조상 「산업기술보호위원회(위원장: 총리)」 심의를 거쳐 지식경제부 장관이 승인토록 규정되어 있음
- 포스코는 현재까지 파이넥스 기술의 해외진출과 관련하여 정부에 공식 요청을 한 바도 없으며, 본 건과 관련하여 정부에서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개최한 바도 없음
- ‘파이넥스 수출’은 이달 31일 개최될 한중 투자협력위원회의 의제로 채택된 바 없음. 끝.

※ 자료문의 : 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이승우 과장(02-2110-5641)
지식경제부 철강화학과 송현주 사무관(02-2110-5648)